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노아와 다니엘과 욥 —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본들

메시지 1

시대를 바꾸도록 시대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일함

성경: 겔 14:14, 20, 창 6:8, 마 24:37-39, 단 2:34-35, 욥 42:5-6

- (겔 14:14)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 낼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 (겔 14:20)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라도 건져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 낼 것이다.
-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 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 (욥 42:5-6)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I.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계시하는 본들이다. 그 길은 시대를 바꾸도록 시대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다 — 겔 14:14, 20, 창 2:9, 계 2:7, 22:1-2, 마 24:37-39, 45-51, 단 2:34-35, 행 26:19, 딤후 4:8.

- (겔 14:14)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 낼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 (겔 14:20)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이라도 건져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혼만 건져 낼 것이다.
-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

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4:45-51)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⁴⁸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⁴⁹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⁵⁰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⁵¹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거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II.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생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도록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해 넣으시는 것을 계시한다. 성경 전체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는데, 그 원칙은 바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도록,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 비교 딤후 1:3-4, 엡 3:2, 벧전 4:10, 시 36:8-9, 고후 13:14, 엡 3:16-19.

(딤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엡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벧전 4: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 하십시오.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3:16-19)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 노아에게서 우리는 (무지개로 상징된)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 그분의 영원한 언약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 존재가 지혜롭게 전시되게 하는 것이다 — 창 3:24, 9:8-17, 겔 1:26-28, 36:22-38, 마 26:28, 히 8:8-12, 고전 1:9, 24-30, 2:9-10, 엡 2:10, 5:25-27, 계 4:3, 21:18-20.

(창 3:24)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 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 9:8-17)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⁹“내가 이제 너희와 너희 뒤를 이를 씨와 나의 언약을 세운다. ¹⁰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가축과 땅의 온갖 짐승 즉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인 땅의 온갖 동물과 나의 언약을 세운다. ¹¹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²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¹³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¹⁴내가 구름으로 땅 위를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¹⁵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육체를 지닌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⁶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육체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¹⁷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겔 1:26-28)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²⁷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뒤덮인 모습 같았다.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 같았다. 그분 주위에는 사방으로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²⁸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겔 36:22-38) 그러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이스라엘 집에 전하여라.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 간 곳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²³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룩해질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와 선포이다. ²⁴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이 너희 자신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²⁵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가 정결해질 것이다.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온갖 우상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²⁶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²⁷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²⁸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거주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²⁹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가져다가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이 들지 않게 하겠다. ³⁰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여, 너희가 더 이상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 때문에 비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³¹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않았던 행위를 기억할 것이며, 너희의 죄악과 혐오스러운 짓 때문에 너희 자신의 눈에도 스스로가 역겨울 것이다. ³²주 여호와와 선포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아, 네 길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³³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 성들은 살 곳이 되고 폐허 된 곳들은 재건되게 하겠다. ³⁴지나가는 모든 이의 눈에 황폐하던 그 땅이 황폐해져 있지 않고 일구어질 것이다. ³⁵그들은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동산처럼 되었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허물어진 성들이 요새가 되고 살 곳이 되었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³⁶그때가 되면, 네 주변에 남아 있는 민족들은 나 여호와께서 폐허 된 곳들을 재건하고 황폐하게 된 곳을 경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하겠다. ³⁷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집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 달라고 내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 떼처럼 불러나게 하겠다. ³⁸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양 떼처럼, 정해진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양 떼처럼, 폐허 된 성들이 사람의 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 26: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히 8:8-1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날들이 오고 있다.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⁹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주의 말이다. ¹⁰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¹¹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각

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¹²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 1: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전 1:24-30)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²⁵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²⁶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²⁷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²⁸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²⁹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³⁰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2:9-10) 오직 성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¹⁰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엡 2: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엡 5:25-27)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²⁶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²⁷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계 21:18-20)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나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¹⁹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B.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임을 본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산산이 부수는 돌로서 이 시대를 종결하고 온 땅을 채우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한다 — 단 2:31-45, 7:13-14, 10:4-9, 욥 3:11, 계 12:1-2, 5, 11, 19:7-21.

(단 2:31-45) 왕이시여! 왕께서 보시니, 거대한 형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크고 대단히 번쩍이는 형상이 왕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³²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³³다리는 쇠이며,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³⁴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거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³⁶이것이 그 꿈입니다. 저희가 그 해몽을 왕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³⁷왕이시여! 왕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니,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왕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³⁸사람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거하는 곳은 어디든,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금으로 된 그 머리가십니다.³⁹왕 뒤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놋으로 된 또 다른 왕국인 셋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⁴⁰그리고 쇠만큼이나 강한 넷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고 조각내듯, 이 모든

것을 으개는 쇠처럼, 그 왕국이 부수고 으깬 것입니다. ⁴¹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인 것을 보신 대로, 그 왕국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쇠의 단단함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왕께서 쇠와 땅의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대로입니다. ⁴²발가락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듯이, 왕국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⁴³왕께서 쇠와 땅의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사람들의 씨를 통해 서로 섞이기는 하겠지만 쇠가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합쳐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⁴⁴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⁴⁵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단 7:13-14) 내가 밤의 이상들 가운데 살펴보니 / 하늘의 구름을 타고 /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오시는데 /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와 /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단 10:4-9) 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히데젤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⁵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⁶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난 듯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⁷나 다니엘만 홀로 그 이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큰 공포에 휩싸인 채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⁸그래서 나 홀로 남아 그 큰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는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았고, 내 얼굴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⁹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을 3:11) 주변의 너희 모든 민족들은 / 속히 와서 / 모여라.’ /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계 12:1-2)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²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계 19:7-21)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⁸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⁹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¹⁰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 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¹¹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¹²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¹³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¹⁵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¹⁶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¹⁷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¹⁸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¹⁹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²⁰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고, ²¹그 나머지 자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 C. 욥에게서 우리는 영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인들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본다. 그분의 연인들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외양에서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 낸다 — 욥 10:13, 42:5-6, 엡 3:9, 마 5:8, 고후 3:16-18, 딤후 3:5, 고전 10:31, 엡 3:20-21, 계 21:10-11.
- (욥 10:13)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 (욥 42:5-6)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고후 3:16-18)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¹⁷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¹⁸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 (엡 3:20-21)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¹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Ⅲ.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 창 6:8.

- A. 노아의 생활과 일은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계시해 준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 창 6:1-14, 마 24:37-39, 고후 12:7-9.
- (창 6:1-14)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자, ²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여자를 각자 아내로 삼았다. ³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⁴그 당시에 땅에는 네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 ⁵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⁶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⁷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⁸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⁹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¹⁰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

았다. ¹¹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¹²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부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¹³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¹⁴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⁸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⁹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악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 육체는 마귀의 임재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 창 6:3, 8, 롬 7:17-21, 히 4:16, 고전 15:10.

(창 6: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롬 7:17-21)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¹⁸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¹⁹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²⁰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²¹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 은혜의 산물은 의이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를 수 있고,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올바를 수 있다 — 롬 5:17, 21, 벧후 2:5.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벧후 2:5) 또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호하셨습니다.

- B. 노아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건조했다 — 창 6:8-22, 히 11:7, 벧전 3:20-21, 마 16:18.

(창 6:8-22)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⁹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¹⁰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¹¹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¹²하나님께서 땅을 바

라보시니, 땅이 부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¹³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¹⁴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¹⁵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삼백 규빗이고, 너비는 오십 규빗이며, 높이는 삼십 규빗이다. ¹⁶그 방주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되 맨 위에서 위로 한 규빗을 올려 완성하고, 방주 옆쪽에는 입구를 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¹⁷이제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진멸하리니,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¹⁸그러나 내가 너와는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¹⁹육체를 지닌 살아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각기 둘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²⁰새들도 제 종류대로, 가축도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도 제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올 것이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²¹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먹을거리를 얼마씩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²²노아가 그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히 11:7)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판결 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벧전 3:20-21)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²¹이 물이 가리키는 실체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또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1.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건축물은 노아의 방주이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사람이다 — 요 1:14, 2:19, 고전 3:9, 16-17, 계 21:2, 22, 엡 2:22, 시 27:4.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2:1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고전 3: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전 3:16-17)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¹⁷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2.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요소를 건축 재료로 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의 예표이다 — 마 16:18, 고전 3:9-12상, 엡 3:8-10, 4:12.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3:9-12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¹⁰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¹¹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¹²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엡 3:8-10)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⁹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¹⁰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4: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방주의 세 층은 우리의 체험에 따른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제일 낮은 층으로 상징되시는 그 영은 우리를 아들로 이끄시고(벧전 1:2, 요 16:8, 13-15), 아들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를 더 높이 아버지께로 이끄신다(요 14:6, 엡 2:18, 요일 1:5, 4:8).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요 16:8)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받게 하실 것입니다.

(요 16:13-15)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⁴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⁵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엡 2:18)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4. 방주의 셋째 층에는 하늘을 향해 오직 하나의 창문만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는 하나의 신약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오직 하나의 계시와 하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창 6:16, 행 26:19, 잠 29:18상, 딤후 1:3-4, 고후 3:6-9, 4:1.

(창 6:16) 그 방주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을 내되 맨 위에서 위로 한 규빗을 올려 완성하고, 방주 옆쪽에는 입구를 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행 26: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잠 29:18상)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딤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후 3:6-9)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⁷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⁸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⁹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고후 4: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IV. 다니엘은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된다 — 단 9:23, 10:11, 19, 뱀전 2:7, 출 19:4-6.

(단 9: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운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뱀전 2: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출 19:4-6)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⁵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⁶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줄 말이다.”

A.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다니엘에게 최고로 보배로운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 단 10:4-9.

(단 10:4-9) 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⁵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⁶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난 듯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⁷나 다니엘만 홀로 그 이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큰 공포에 휩싸인 채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⁸그래서 나 홀로 남아 그 큰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는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았고, 내 얼굴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⁹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1. 그리스도는 포로 되어 있는 그분의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겹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셨다 — 단 10:5상, 출 28:31-35.

(단 10:5상)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출 28:31-35)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겹옷을 전부 청색 실로 만들어라. ³²그 겹옷의 가운데에는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구멍처럼 잘 휘감쳐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³³그 겹옷의 옷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 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³⁴그 겹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를 달아라. ³⁵아론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겹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2.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 단 10:5하.

(단 10:5하)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된, 보배로 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 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황색) 생명으로 충만하시며(녹색) 하늘에 속하심(청색)을 상징한다 — 단 10:6상.

(단 10:6상)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4. 그리스도는 또한 번개의 모습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나타나셨으며(단 10:6상), 햇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6상절).

(단 10:6상)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단 10:6상)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5. 그리스도는 광넛 솟이 빛나는 것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된,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셨다 — 단 10:6하.

(단 10:6하) 그분의 팔과 발은 광넛 솟이 빛나는 것 같으며,

6.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 — 단 10:6하.

(단 10:6하)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 B. 다니엘은 온 세계정세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기 위해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해 하늘들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 — 단 2:34-35, 44-45, 7:9-10, 4:34-35, 골 1:15, 17-18, 계 2:4-5.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2:44-45)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⁴⁵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단 7:9-10) 내가 살펴보니 / 보좌들이 놓이고 /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으셨는데 / 그분 옷은 흰 눈 같고 / 그분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았으며 / 그분 보좌는 불꽃이었고 /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¹⁰볼 시내가 흘러 / 그분 앞에서 나오고 / 그분을 섬기는 이가 천천이며 / 그분 앞에 선 이가 만만이었다. / 심판의 법정이 열리고 / 책들이 펴졌다.

(단 4:34-35) “그날들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³⁵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골 1: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 1:17-18)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¹⁸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

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V. “그때 여호와께서 … 욥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욥 38:1),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하였다.”(42:1), “여호와께서 욥을 사로잡혔던 데서 돌아오게 하시고”(10상절).

A.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욥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욥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을 얻으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소모되게 하는 것이었다 — 욥 9:15, 11:12, 13:4, 빌 3:8, 12-13.

(욥 9:15) 나 비록 의로워도 그분께는 응수할 수 없기에 / 다만 나의 심판자 앞에서 공홀을 구할 뿐이네.

(욥 11:12) 그러나 머리가 빈 사람이 지각이 든다면 /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절세.

(욥 13:4) 그런데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 내는 이들이요 /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 뿐이로군.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12-13)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¹³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온전하고 올곧았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 욥 1:1, 딤후 3:5.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홀에 따라 새로 낚은 씨앗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이끄심으로, 욥이 자신의 인간 생명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얻으며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 골 2:19.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두셔서 욥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 창 2:9, 딤후 6:11, 딤후 3:17, 엡 3:14-21.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딤후 6: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딤후 3: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엡 3:14-21)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¹⁵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¹⁶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B. 욕기는 욕식욕 권으로 된 성경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욕 10:13, 엡 3:9, 빌 3:8-9, 엡 1:22-23, 2:15, 계 21:2.

(욕 10:13)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엡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빌 3:8-9) 그뿐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⁹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엡 1:22-23)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엡 2: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C. 이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갈 5:25, 롬 8:4, 빌 3:3, 계 2:7, 22:17상.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2:17상)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메시지 2

노아가 따른 생명의 노선 — 시대를 바꾸는 생활과 일

성경: 창 6:5-14, 히 11:7

(창 6:5-14)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⁶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⁷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⁸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⁹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 의롭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¹⁰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¹¹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¹²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부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¹³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¹⁴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히 11:7)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판결 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I.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온 존재를 누렸다.

- A. 사탄이 사람을 극도로 부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 B. 그러므로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가지셨던 원래의 목적을 계속하여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길을 마련해 드리는 주권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C. 노아의 생활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이기셨고 시대를 바꾸셨다.

II. 노아의 생활은 시대를 바꾸는 생활이었다 — 비교 빌 1:19-21상.

(빌 1:19-21상)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A. 시대를 바꾸는 생활은 조상들의 경건한 길들을 물려받는 생활이다.

1. 노아는 아담이 취한 구원의 길을 물려받아,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의이신 그리스도로 자신을 덮었다 — 창 3:15, 20-21, 비교 사 12:2.

(창 3:15)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 원수가 되게 하고 /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창 3:20-21) 그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²¹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

(사 12:2) 이제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렵니다. / 야 여호와께서 제 힘과 노래이시며 / 제 구원이 되신 까닭입니다.”

2. 노아는 아벨이 취한 제물을 드리는 길을 물려받았다. 그 길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다 — 창 4:4.
(창 4:4) 아벨도 자기의 양 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 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3. 노아는 에노스가 취한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리는 길을 물려받았다 — 창 4:26, 렘 33:3, 롬 10:12, 딤후 2:22.
(창 4:26)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렘 33:3)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 주겠다.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4. 노아는 에녹이 취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물려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 창 5:22-24, 히 11:5-6, 고후 5:4, 9, 14-16, 6:1.
(창 5:22-24)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다음,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²³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²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5: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고후 5:14-16)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¹⁶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고후 6: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 B.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부패한 시대의 실지 상황을 노아에게 보여 주셨다 — 창 6:3, 5, 11, 13, 마 24:37-39, 딤후 3:1-5.
- (창 6: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창 6:11) 그 당시에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창 6: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3:1-5)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²왜냐하면 그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혈통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³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⁴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⁵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C.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은혜)을 입었다.” — 창 6:8.

1. 사탄이 힘을 다해 상황을 망쳐 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시대를 바꾼 몇몇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 비교 단 1:8, 9:23, 10:11, 19.

(단 1:8)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요청하였다.

(단 9: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운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단 10: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2. 창세기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a. 은혜란 우리의 누림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임재이다 — 요 1:14, 16-17, 계 22:21.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16-17)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¹⁷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계 22: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b.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 엡 6:24, 요 21:15-17.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21:15-17)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

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¹⁷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 c. 우리는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히 10:29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히 10:29하)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 6: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빌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몬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d.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 행 20:32, 골 3:16, 비교 롬 15:16.

(행 20:32)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롬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 e.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생명의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한다 — 시 133:3, 벰전 3:7, 행 4:33, 11:23.

(시 133:3) 헤르몬의 이슬이 /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 영원한 생명이라.

(벰전 3:7)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 4:33)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행 11: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 f.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증가하며 모든 것을 충족하는 우리의 은혜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 고후 12:9.

(고후 12: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 g.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3:12.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

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 h.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 — 벰전 4:10, 엠 3:2, 고후 1:15, 엠 4:29.

(벰전 4: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엠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후 1:15)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엠 4: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 i.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를 수 있고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다. 은혜는 의를 산출한다 — 히 11:7, 롬 5:17, 21.

(히 11:7)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판결 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Ⅲ. 노아의 일은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다 — 고전 3:9, 고후 6:1, 마 16:18, 고전 3:12.

(고전 3: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자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후 6: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 A.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계시, 더 전진된 계시, 곧 방주를 건조하라는 계시를 주셨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게 하는 길이었다.

1.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벰전 3:20-21)인데, 방주로 예표되시는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사람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마 16:18, 고전 12:12, 엠 2:15-16, 골 3:10-11, 계 21:2).

(벰전 3:20-21)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 기다릴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여덟 사람이었습니다.²¹이 물이 가리키는 실체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또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엡 2:15-16)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¹⁶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저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며,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풍성의 요소를 건축 재료로 하여 건축된다 — 고전 3:9-12상, 엡 4:12, 2:22.

(고전 3:9-12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¹⁰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¹¹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¹²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엡 4: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건축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을 함께 건축하여, 그들을 육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게 한다 — 딤후 3:15-16.

(딤후 3:15-16)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¹⁶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 a. 우리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방면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마 16:18, 엡 2:21-22, 3:17상, 고전 14:4하.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엡 2:21-22)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²²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17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고전 14:4하)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 b.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 고후 13:14, 고전 3:9상, 10, 12, 롬 11:36.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3:9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10)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롬 11: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B.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세대에 집행하실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로운 시대 곧 천년왕국의 시대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 히 11:7, 마 24:37-39, 눅 17:26-27.

(히 11:7)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판결 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7:26-27)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²⁷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기는 이들의 승리

성경: 단 1-6장

(단 1-6장)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삼 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을 포위하였다. ²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그것들을 시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지고 왔으며,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³그리고 나서 왕은 내시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왕가의 씨와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되 ⁴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온갖 지혜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에 대한 명철한 그리고 생각에 대한 간파력이 엿보이는 소년들로서, 왕궁에 설 역량이 있는 이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왕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에게 말하였다. ⁵왕은 그들에게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매일의 몫을 정해 주었고, 또 삼 년간 양육받고서 그 기한이 찬 후 왕 앞에 서도록 정하였다. ⁶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⁷내시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트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⁸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요청하였다. ⁹하나님은 다니엘이 내시장 앞에서 은총과 자비를 입게 하셨다. ¹⁰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내 주군이신 왕이 두렵다. 어찌 왕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보시게 하려 드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¹¹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담당하도록 정한 감독관에게 말하였다. ¹²“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해 보십시오. ¹³그런 다음 감독관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색과 왕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색을 살펴보고, 감독관님이 보시는 대로 이 종들에게 하십시오.” ¹⁴감독관은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¹⁵열흘 후 그들의 얼굴색은 더욱 좋아 보였으며, 왕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더 살이 올라 있었다. ¹⁶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할당된 가장 좋은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물리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¹⁷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에 지식과 통찰력을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을 이해하게 되었다. ¹⁸소년들을 데려오라고 왕이 말한 기한이 차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¹⁹왕이 그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왕의 면전에 서게 되었다. ²⁰왕은 각종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보고서, 그들이 그의 온 영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법술사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²¹다니엘은 고레스왕 제일 년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²²느부갓네살 통치 제이 년에,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나서 영이 편치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²³그래서 왕이 자기 꿈을 분명하게 밝혀 줄 마술사와 법술사와 요술사와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²⁴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싶어 내 영이 편치 않소.” ²⁵그러자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몽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²⁶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분명하게 명령하였소.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그대들은 토막이 날 것이고, 그대들의 집은 톱 더미가 될 것이요. ²⁷그러나 그대들이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나에게서 받을 것이요.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오.” ²⁸그들이 다시 대답하였다. “왕께서 이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몽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²⁹왕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이 내가 이미 분명하게 명령한 것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소. ³⁰그러나 그대들이 나에게 그 꿈을 알려 주지 못하면 그대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그대들이 내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 꿈을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이 나에게 그 해몽도 분명하게 밝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소.” ³¹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였다. “왕께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법술사나 갈대아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³²왕께서 요구하시는 이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이외에는 왕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³³이 일 때문에 왕은 성이 나서 몸서리를 내며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³⁴현인들을 죽이라는 포고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³⁵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호위 대장 아리옥에게 슬기롭고 분별력 있게 대응하였다. ³⁶그가 왕의 사령관 아리옥에게 말하였다.

“왕의 포고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 주었다. ¹⁶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그 해몽을 분명하게 밝힐 시간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였다. ¹⁷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동반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려, ¹⁸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바빌론의 남은 현인들과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게 하였다. ¹⁹그러자 밤의 이상 가운데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고, 다니엘은 하늘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²⁰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 그분의 이름을 /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²¹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 왕들을 물러나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신다네. / 지혜로운 이에게는 지혜를, / 총명한 이에게는 지식을 주신다네. ²²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니 /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 빛은 그분과 함께 거한다네. ²³제 조상의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까닭이며 / 저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이제 저에게 알게 하심은 / 주님께서 왕의 일을 저희에게 알려 주신 까닭입니다.” ²⁴그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왕이 임명한 아리옥에게 갔다. 그는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왕 앞에 데려다주시면 왕께 그 해몽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²⁵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포로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²⁶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 지어진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본 꿈과 그 해몽을 내게 알려 줄 수 있겠느냐?” ²⁷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그 비밀은 어떤 현인이나 법술사나 마술사나 점술가도 왕께 분명하게 밝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²⁸그러나 하늘들에는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왕께 알려 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시실 때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들은 이렇습니다. ²⁹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시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신 것이니,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³⁰저에게 이 비밀이 계시된 것은 살아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에게 더 많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왕께 해몽을 알려시어 왕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³¹왕이시여! 왕께서 보시니, 거대한 형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크고 대단히 번쩍이는 형상이 왕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³²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³³다리는 쇠이며,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³⁴왕께서 보고 계시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³⁶이것이 그 꿈입니다. 저희가 그 해몽을 왕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³⁷왕이시여! 왕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니,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왕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³⁸사람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가 거하는 곳은 어디든,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금으로 된 그 머리가십니다. ³⁹왕 뒤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놋으로 된 또 다른 왕국인 셋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⁴⁰그리고 쇠만큼이나 강한 넷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고 조각내듯, 이 모든 것을 으깨는 쇠처럼, 그 왕국이 부수고 으깬 것입니다. ⁴¹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인 것을 보신 대로, 그 왕국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쇠의 단단함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왕께서 쇠와 땅의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대로입니다. ⁴²발가락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듯이, 왕국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⁴³왕께서 쇠와 땅의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사람들의 씨를 통해 서로 섞이기는 하겠지만 쇠가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합쳐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⁴⁴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⁴⁵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⁴⁶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그에게 예물과 향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⁴⁷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다니,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신 하나님 이시요 왕들의 주인이시며 비밀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오.” ⁴⁸그러고 나서 왕은 다니엘을 위대하게 세우고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며, 그를 바빌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현인들을 주관하는 장관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⁴⁹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의 지방 행정을 맡도록 임명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궁정에 머물렀다. ⁵¹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육 규빗이었다. 그가 그 형상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평원에 세웠다. ⁵²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참석할 지방관들과 장관들과 총독들과 대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법무관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을 모아들이기 위해, 느부갓네살왕은 전갈을 보냈다. ⁵³그러자 지방관들과 장관들과 총독들과 대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법무관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을 위하여 모여들어,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섰다. ⁵⁴그때 전령이 크게 선포하였다.

“백성들과 민족들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⁵뿔 나팔과 가로피리와 비파와 삼각금과 양금과 풍적과 온갖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대들은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시오. ⁶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이요.” ⁷그리하여 뿔 나팔과 가로피리와 비파와 삼각금과 양금과 풍적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형상에 경배하였다. ⁸그 때 이러한 일 때문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대인들을 고발하였다. ⁹그들이 느부갓네살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¹⁰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시어, 뿔 나팔과 가로피리와 비파와 삼각금과 양금과 풍적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든지 엎드려 금형상에 경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¹¹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¹²그런데 왕이시여!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맡도록 임명하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하는 유대인들인 그 사람들은 왕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¹³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격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왔다. ¹⁴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대들이 일부터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은 것이요? ¹⁵지금이라도 뿔 나팔과 가로피리와 비파와 삼각금과 양금과 풍적과 온갖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소. 그러나 그대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던져질 것인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그대들을 건져 내겠소?” ¹⁶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왕이시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는 왕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¹⁷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저희가 섬기는 저희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불가마에서 저희를 건져 내실 수 있으시니, 그분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¹⁸그러나 왕이시여! 그분께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¹⁹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변하더니, 가마를 평소 달구던 것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²⁰그리고는 자신의 군대에서 험센 용사 몇 명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이글거리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²¹그리하여 그들이 상의와 긴 속옷과 겹옷 등의 옷을 걸친 채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²²왕의 말이 몹시도 가혹하였고 가마가 극도로 달구어져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메고 간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²³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묶인 채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²⁴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서 그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않았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분명 그렇습니다.” ²⁵왕이 말하였다. “보시오, 나에게네 네 사람이 풀려나 불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해를 입지 않고 있소. 게다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소.” ²⁶느부갓네살은 이글거리는 불가마 입구로 가까이 다가가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 나오시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다. ²⁷지방관들과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그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옷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서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²⁸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뒤엎고 자기들의 몸을 내줄 지라도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은 그분의 종들을 건져 내셨다. ²⁹그러기에 내가 칙령을 내리니, 어떤 백성이나 민족이든 혹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이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는 토막 날 것이고, 그 집은 똥 더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져 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³⁰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 지방에서 변영하게 하였다. ⁴¹느부갓네살왕이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전하였다.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란다. ²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알리게 됨을 기쁘게 여긴다. ³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엄청나며 / 그분의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른다.” ⁴“나 느부갓네살은 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나의 궁전에서 번성을 누리고 있었다. ⁵내가 어떤 꿈을 보았는데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였고, 내 침상 위에서의 상상들과 내 머릿속의 이상들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⁶그래서 나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알려 줄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칙령을 내렸다. ⁷마술사와 법술사와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말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 해몽을 나에게 알려 주지 못하였다. ⁸그러나 결국에는 다니엘이 내 앞에 나아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⁹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 그대 안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어 그대가 어떤 비밀도 곤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내가 꿈에 본 이상들을 들려줄 터이니, 이제 그 해몽을 말해 보시오. ¹⁰침상 위에서 내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들은 이러하오.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엄청났소. ¹¹그 나무가 크게 자라 우람해지니 /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 그 모

습이 온 땅 끝에서도 보였다고. ¹²이파리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여 / 그 안에는 모두가 먹을 양식이 있었다 오. / 들짐승들이 그 아래서 그들을 얻고 /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이며 /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양식을 얻었다고. ¹³침상 위에서 내 머릿속에 나타난 이상들을 통해 내가 보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소. ¹⁴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소. / ‘그 나무를 베어 가지들은 잘라 내며 / 이파리들은 모두 떨어 버리고 열매들은 흠어 버려 /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 새들이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여라. ¹⁵하지만 그 뿌리등결은 / 땅에 남겨 두되 / 쇠와 못으로 된 띠를 둘러서 / 여린 들풀 사이에 남겨 두어라. / 그가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 그의 뭍이 땅의 풀 가운데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라. ¹⁶그 마음이 바뀌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게 하고 /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며 / 일곱 시한이 지나게 하여라. ¹⁷이 일은 감시자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결정은 거룩한 이들의 지시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시며 가장 비천한 이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 있는 이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¹⁸이 꿈을 나 느부갓네살왕이 보았소. 이제 벨드사살 그대가 그 해몽을 말해 보시오. 내 왕국의 어떤 현인도 나에게 그 해몽을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그대 안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대는 할 수 있소.” ¹⁹그러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자기 생각에 놀라 한동안 매우 당황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벨드사살이여, 그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놀라지 마시오.” 벨드사살이 대답하였다. “주군이시여, 그 꿈이 주군을 미워하는 이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해몽이 주군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²⁰주군께서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우람해졌고,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 모습이 온 땅에서 보였으며 ²¹이파리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여, 그 안에는 모두가 먹을 양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거하며, 그 가지들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하셨는데 ²²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크게 성장하여 막강해지신 왕이십니다. 이는 왕의 위력이 점점 커져 하늘에까지 닿았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에까지 미친 까닭입니다. ²³또 왕께서 보시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하지만 그 뿌리등결은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못으로 된 띠를 둘러서 여린 들풀 사이에 남겨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시한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뭍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하셨는데 ²⁴왕이시여,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저의 주군이신 왕께 내리신 명령입니다. ²⁵왕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게 되실 것인데, 이렇게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²⁶그 나무의 뿌리등결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²⁷그러니 왕이시여, 제 조언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어 왕의 죄들을 끊어 버리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왕의 죄악들을 끊어 버리신다면, 왕의 번영이 지속될 것입니다.” ²⁸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왕에게 닥쳤다. ²⁹열두 달이 다 지나갈 무렵, 그는 바빌론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³⁰왕이 말하였다. ‘이 큰 바빌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여 내 왕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³¹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임하였다. “느부갓네살왕, 너에게 말한다. 왕국은 이미 너에게서 떠나갔다. ³²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황소처럼 풀을 뜯게 되리니,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너는 가장 높은 이가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이요 그가 원하는 이에게 그것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³³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황소처럼 풀을 뜯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다. ³⁴“그날들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³⁵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³⁶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과 내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다. 내 조언자들과 내 대신들은 나를 찾아왔고, 나는 내 왕국에서 견고해졌으며, 내게는 출중한 위력이 더하여졌다. ³⁷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들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경의를 표함은, 그분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분의 길들이 정의롭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를 낮추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³⁸벨사살왕이 대신들 천 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³⁹벨사살은 술에 취한 채 명령을 내려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내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왕과 그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⁴⁰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 집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내오자, 왕과 그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은 그 그릇들로 술을 마셨다. ⁴¹그들은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⁴²그때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등잔대 맞은편 왕궁 석회 벽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자를 쓰고 있는 손의 그 부분을 보았다. ⁴³그러자 왕의 얼굴색이 바뀌더니 자기 생각에 놀라서, 고관절이 풀려 무릎이 서로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⁴⁴왕은 큰 소리로 법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왕이 바빌론의 현인들에

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독을 나에게 밝혀 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되며, 왕국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요.”⁸ 그리하여 왕의 현인들이 모두 나아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왕에게 해독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⁹ 벨사살왕은 크게 놀라 얼굴색이 더 바뀌었고, 그의 대신들은 당혹스러워하였다.¹⁰ 왕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모후가 연회장에 들어왔다. 모후가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께서는 여러 생각으로 근심하시거나 안색이 달라지실 이유가 없습니다.”¹¹ 왕의 왕국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왕 때에 빛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선왕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법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¹² 왜냐하면 선왕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으신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 그가 꿈을 해몽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난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시면 그가 분명 저 해독을 밝혀 드릴 것입니다.”¹³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 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의 선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요?”¹⁴ 내가 그대에 대해 들으니,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빛과 통찰력과 출중한 지혜가 그대에게 있다고 하였소.¹⁵ 지금 현인들과 법술사들을 내 앞에 불러 저 글자를 읽고 나에게 해독을 해 주도록 하였건만, 그들은 저것에 대한 해독을 밝혀내지 못하였소.¹⁶ 그런데 내가 그대에 대해 들으니, 그대는 해독을 할 수 있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소. 그대가 지금 저 글자를 읽고 나에게 해독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대는 자주색 옷을 입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되며 왕국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요.”¹⁷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였다. “왕의 선물을 거두시거나 상급을 다른 이에게 주거나 하십시오. 그리하여도 저는 왕을 위하여 저 글자를 읽고 해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¹⁸ 왕이시여, 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선왕께 왕권과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¹⁹ 하나님께서 선왕을 위대하게 하셨기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왕은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죽이기도 하셨고,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살리기도 하셨으며,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높이기도 하셨고,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낮추기도 하셨습니다.²⁰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영이 너무 거만해지시어 교만하게 행하시다가, 옥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²¹ 선왕은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셨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같이 되시어 들나귀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왕께 황소처럼 풀을 드시게 하였고, 그 몸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를 그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²² 그런데 그 후손이신 벨사살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시기는커녕²³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시어 왕과 왕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셨으며,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²⁴ 그리하여 그분 앞에서부터 손의 그 부분이 보내져 이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²⁵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입니다.²⁶ 이것에 대한 해독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²⁷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며,²⁸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²⁹ 그러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였다.³⁰ 바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였다.³¹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육십이 세가량이었다.^{6:1} 다리오는 자기의 뜻대로 왕국에 백이십 명의 지방관을 세워 왕국 전역에 머물게 하고² 그들 위에 총리 세 명을 세웠다(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지방관들이 이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³ 이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어 총리들과 지방관들 가운데에서 두각이 드러나자, 왕은 다니엘을 온 왕국 위에 세우려 하였다.⁴ 그때 총리들과 지방관들은 왕국 차원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할 근거나 잘못을 찾지 못하였다.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과실이나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⁵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 무언가를 찾아내지 않고는, 우리가 그를 고발할 어떤 근거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⁶ 그리하여 총리들과 지방관들이 왕을 설득하려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오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7 왕국의 모든 총리와 장관과 지방관과 조언자와 총독은 왕께서 율례를 세우시어 한 가지 확고한 금령을 내리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⁸ 왕이시여, 이제 그 금령을 세우시고 문서에 서명하시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고칠 수 없는 법에 따라 그것이 바뀌지 않게 하십시오.”⁹ 그리하여 다리오왕이 그 문서 곧 그 금령에 서명하였다.¹⁰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¹¹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¹²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금령에 대해 말하였다. “왕이시여,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 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금령에 왕께서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고칠 수 없는 법에 따라 확고하오.” ¹³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은 왕을 공경하거나 왕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날마다 세 번씩 간구하고 있습니다.” ¹⁴왕은 이에 대해 듣고서 매우 번민하며 다니엘을 구해 낼 마음을 품고, 그를 구해 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썼다. ¹⁵그때 그 사람들이 왕을 설득하려고 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이 한 번 세운 금령이나 율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¹⁶그리하여 왕은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은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 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이여, 그대가 한결같이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해 내실 것이오.” ¹⁷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자,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와 대신들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다니엘과 관련된 일은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¹⁸그리고 나서 왕은 궁으로 돌아가 금식하며 밤을 보냈는데, 어떤 유희거리도 들이지 않고 온밤을 꼬박 지새웠다. ¹⁹새벽녘 동이 틀 무렵 왕은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갔다. ²⁰그는 굴 가까이에 다다르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그대가 한결같이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 내실 수 있으셨던 게요?” ²¹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²²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니,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 앞에 제가 무고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께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²³그러자 왕은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끌어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굴에서 끌어 올려졌고,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²⁴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뼈들을 모두 으스러뜨렸다. ²⁵그때 다리오왕은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²⁶내가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 이는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 그분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며 / 그분의 통치가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²⁷그분은 구해 주시고 건져 내시며 / 하늘과 땅에서 /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어 / 다니엘을 사자들의 기세에서 구해 내신 분이시로다.” ²⁸이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통치 때에 변역하였다.

I.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원칙을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사탄의 책략에 맞서 승리한 이기는 이들이었다 — 단 2:13, 17, 비교 계 17:14, 마 22:14.

(단 2:13) 현인들을 죽이라는 포고령이 내려지자,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단 2:17) 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동반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려,

(계 17:14) 그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 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마 22:14)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A.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을 마귀적으로 유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들의 이름을, 우상들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 단 1:6-7.

(단 1:6-7)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⁷내시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B.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를 의미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바빌론 신)의 왕자’ 혹은 ‘벨이 총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벨드사살로 바뀌었다 — 사 46:1.

(사 46: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고꾸라졌나니 /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려 간다. / 너희가 실어 나르는 것들은 짐 / 지친 짐승에게 지우는 짐 더미일 뿐.

C. ‘야(여호와)께서 은혜롭게 주셨다’ 혹은 ‘야께 은총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하나냐는 ‘태양신에게

서 깨우침을 얻었다'를 의미하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다.

- D.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의미하는 미사엘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메삭으로 바뀌었다.
- E. '야께서 도우셨다'를 의미하는 아사라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을 의미하는 아벳느고로 바뀌었다.

II.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귀신적인 음식에 맞서 승리했다 — 단 1장.

- A. 느부갓네살의 마귀적인 유혹은 먼저 하나님의 패배한 선민 가운데 네 명의 명석한 젊은 후손 곧 다니엘과 그의 세 동반자를 꺾어서, 부정한 음식 곧 우상들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여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 B.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면, 더럽혀진 것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을 받아들여 사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 비교 고전 10:19-21.

(고전 10:19-21)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나, 혹은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²⁰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²¹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C.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느부갓네살의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했을 때(단 1:8-16), 원칙상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거절하고(비교 창 3:1-6),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생명나무를 받아들인 것이다(비교 창 2:9, 16-17).

(단 1:8-16)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장에게 요청하였다. ⁹하나님은 다니엘이 내시장 앞에서 은총과 자비를 입게 하셨다. ¹⁰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내 주군이신 왕이 두렵다. 어찌 왕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핏색한 것을 보시게 하려 드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¹¹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담당하도록 정한 감독관에게 말하였다. ¹²“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해 보십시오. ¹³그런 다음 감독관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색과 왕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색을 살펴보고, 감독관님이 보시는 대로 이 종들에게 하십시오.” ¹⁴감독관은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¹⁵열흘 후 그들의 얼굴색은 더욱 좋아 보였으며, 왕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훨씬 더 살이 올라 있었다. ¹⁶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할당된 가장 좋은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를 물리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창 3:1-6)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에 사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²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³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⁴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⁵하나님은 그대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예요.” ⁶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창 2:16-1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D. 주님의 회복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창 2:9, 16-17, 계 2:7, 17, 3:20.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창 2:16-1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E.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데 주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 렘 15:16, 딤후 2:22, 고전 15:33, 잠 13:20.

(렘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고전 15:33)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잠 13:20)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이는 지혜로워지나 /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는 이는 곤경에 빠진다.

III.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사람들이 거대한 인간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인 산산이 부수는 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적인 눈멀게 함에 맞서 승리했다 — 단 2장.

A. 돌과 산인 단체적인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단체적인 사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 곧 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산산이 부수고 멸절할 것이다 — 단 2:34-35, 44-45, 살후 2:8, 계 19:11-21, 창 11:4-9, 비교 사 33:22.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2:44-45)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⁴⁵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살후 2:8)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계 19:11-21)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¹²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¹³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¹⁵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¹⁶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¹⁷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¹⁸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¹⁹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²⁰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킨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고, ²¹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창 11:4-9)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⁵여호와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건축한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⁶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이들이 모두 한 백성이고,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겠습니까. ⁷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이들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까.” ⁸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흠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⁹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흠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었다.

(사 33:22) 여호와와 우리의 심판자 / 여호와와 우리의 율법 제정자 /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B. 하나님의 건축물의 살아 있고 보배로운 돌, 기초 돌, 모퉁이 돌,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는 보배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 있고 보배로운 돌들로 변화시키신다 — 벰전 2:4-8, 사 28:16, 스 3:9, 4:7, 9-10.

(벰전 2:4-8)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⁵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⁶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⁸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사 28:16) 그러기에 주 여호와께서 / 이렇게 말씀하신다. / “참으로 내가 시온에 기초로서 한 돌, / 시험 받은 돌이자 /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나니 /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스 3:9)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스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스 4:9-10)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¹⁰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다.”

IV.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회유에 맞서 승리했다 — 단 3장, 비교 마 4:9-10.

(마 4:9-10) “그대가 오히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¹⁰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그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이다. 영 안에 있지 않거나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 요일 5:21.

(요일 5:21)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B. 몸의 원수는 자기 유익, 자기 높임, 자기 영광, 자기 아름다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치하는 자아이다.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전파한다 — 마 16:24, 고후 4:5.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C. 다니엘의 동반자들은 진정으로 순교의 영을 가졌다. 그들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편에 서고 우상숭배에 맞섰는데, 그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이글거리는 불가마에 던져졌다 — 단 3:19-23.

(단 3:19-23)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변하니, 가마를 평소 달구던 것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²⁰그리고는 자신의 군대에서 힘센 용사 몇 명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이글거리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였다.²¹그리하여 그들이 상의와 긴 속옷과 겹옷 등의 옷을 걸친 채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던져졌다.²²왕의 말이 몹시도 가혹하였고 가마가 극도로 달구어져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메고 간 사람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²³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묶인 채 이글거리는 불가마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D. 느부갓네살이 불가마를 자세히 보았을 때, 그는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단 3:24-25). 이 넷째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뛰어난 그리스도이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미 거기에 오시어 고난받고 박해받는 세 명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며 그 불 속을 거닐기에 쾌적한 곳으로 만드셨다.

(단 3:24-25)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서 그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않았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분명 그렇습니다.”²⁵왕이 말하였다. “보시오, 나에게는 네 사람이 풀려나 불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해를 입지 않고 있소. 게다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소.”

E. 세 명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불가마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비교 단 3:17).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동정하실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으신 분(히 4:15-16)께서 오셔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셨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고난의 환경을 쾌적한 상황으로 바꾸심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셨다.

(단 3:17) 그렇게 된다면 하더라도 왕이시여, 저희가 섬기는 저희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불가마에서 저희를 건져 내실 수 있으시니, 그분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히 4:15-16)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¹⁶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때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V.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사람들이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통치를 못 보게 가로막는 덮개에 맞서 승리했다 — 단 4장.

A.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 단 4:18, 23-26, 30-32, 롬 8:28-29, 골 1:18하, 고후 10:13, 18, 롬 9:23-24.

(단 4:18) 이 꿈을 나 느부갓네살왕이 보았소. 이제 벨드사살 그대가 그 해몽을 말해 보시오. 내 왕국의 어떤 현인도 나에게 그 해몽을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그대 안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대는 할 수 있소.”

(단 4:23-26) 또 왕께서 보시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하지만 그 뿌리등결은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놋으로 된 띠를 둘러서 여린 들풀 사이에 남겨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시한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뿔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하셨는데 ²⁴왕이시여,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저의 주 군이신 왕께 내리신 명령입니다. ²⁵왕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게 되실 것인데, 이렇게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 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²⁶그 나무의 뿌리등결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단 4:30-32) 왕이 말하였다. ‘이 큰 바빌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여 내 왕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³¹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임하였다. “느부갓네살왕, 너에게 말한다. 왕국은 이미 너에게서 떠나갔다. ³²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황소처럼 풀을 뜯게 되리니,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너는 가장 높은 이가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이요 그가 원하는 이에게 그것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롬 8:28-29)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²⁹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10:1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고후 10:18)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롬 9:23-2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 힘센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²⁴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 곧 그가 통찰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 내가 땅에서 자애와 / 정의와 의를 집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이다. /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B. “그분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를 낮추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 단 4:37하.

Ⅶ.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모독한 결과에 대한 무지함에 맞서 승리했다 — 단 5장.

A. 벨사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사용된 그릇들을 가져다 우상들에 경배하는 데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것이었다(단 5:4).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체험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단 4:18-37). 그러나 그는 교훈을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를 입었다(단 5:18, 20, 24-31).

(단 5:4) 그들은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단 4:18-37) 이 꿈을 나 느부갓네살왕이 보았소. 이제 벨드사살 그대가 그 해몽을 말해 보시오. 내 왕국의 어떤 현인도 나에게 그 해몽을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그대 안에는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으니

그대는 할 수 있소.’”¹⁹ 그러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자기 생각에 놀라 한동안 매우 당황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벨드사살이여, 그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놀라지 마시오.” 벨드사살이 대답하였다. “주군이시여, 그 꿈이 주군을 미워하는 이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해몽이 주군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라면 좋겠습니다!”²⁰ 주군께서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우람해졌고,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 모습은 온 땅에서 보였으며²¹ 이파리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여, 그 안에는 모두가 먹을 양식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거하며, 그 가지들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하셨는데²²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크게 성장하여 막강해지신 왕이십니다. 이는 왕의 위력이 점점 커져 하늘에까지 닿았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에까지 미친 까닭입니다.²³ 또 왕께서 보시니, 한 감시자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하지만 그 뿌리등결은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놋으로 된 띠를 둘러서 여린 들풀 사이에 남겨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일곱 시한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묵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하셨는데²⁴ 왕이시여,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저의 주군이신 왕께 내리신 명령입니다.²⁵ 왕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황소처럼 풀을 뜯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게 되실 것인데, 이렇게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²⁶ 그 나무의 뿌리등결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²⁷ 그러나 왕이시여, 제 조언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어 왕의 죄들을 끊어 버리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왕의 죄악들을 끊어 버리신다면, 왕의 번영이 지속될 것입니다.”²⁸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왕에게 닥쳤다.²⁹ 열두 달이 다 지나갈 무렵, 그는 바빌론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³⁰ 왕이 말하였다. ‘이 큰 바빌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여 내 왕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³¹ 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임하였다. “느부갓네살왕, 너에게 말한다. 왕국은 이미 너에게서 떠나갔다.³² 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황소처럼 풀을 뜯게 되리니, 일곱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너는 가장 높은 이가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는 이요 그가 원하는 이에게 그것을 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³³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황소처럼 풀을 뜯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다.³⁴ “그날들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인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³⁵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도 /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 그분의 손을 막거나 /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³⁶ 그때 내 이성인 내게로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과 내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다. 내 조언자들과 내 대신들은 나를 찾아왔고, 나는 내 왕국에서 견고해졌으며, 내게는 출중한 위력이 더하여졌다.³⁷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들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경의를 표함은, 그분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분의 길들이 정의롭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를 낮추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단 5:18) 왕이시여, 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선왕께 왕권과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단 5:20)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시고 영이 너무 거만해지시어 교만하게 행하시다가, 옥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단 5:24-31) 그리하여 그분 앞에서부터 손의 그 부분이 보내어져 이 글자가 새겨진 것입니다.²⁵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²⁶ 이것에 대한 해독은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리시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²⁷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²⁸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²⁹ 그러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였다.³⁰ 바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였다.³¹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육십이 세가량이었다.

B.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 그가 꿈을 해몽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난제(직역하면 매듭)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단 5:12상.

C. “벨사살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들의 주님이신 분을 거슬러 자신을 높이셨고,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시어 왕과 왕의 대신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셨으며,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곧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으셨습니다.” — 단 5:22-23, 비교 20절.

(단 5:20)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시고 영이 너무 거만해지시어 교만하게 행하시다가, 옥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VII.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이기는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간교함에 맞서 승리했다 — 단 6장.

A. 다니엘서 6장의 중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를 의지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할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내재적인 비밀이다.

B.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그의 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셨다(단 6:10, 비교 왕상 19:12, 18).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의 목표인 (거룩한 땅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 왕상 8:48-49.

(단 6:10) 다니엘은 그 금령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그의 위층 방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날마다 세 번 자신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왕상 19:12)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이 있었다.

(왕상 19:18)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춤하지도 않은 이들이다.”

(왕상 8:48-49)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⁴⁹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메시지 4 욥과 두 나무

성경: 창 2:9, 17, 계 22:1-2, 14, 욥 1:1, 2:3, 42:1-6

-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창 2: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겹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 (욥 42:1-6)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하였다. ²“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 주님의 목적은 어떤 방해도 받을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³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결을 가리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 그러니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⁴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들어 보십시오. / 제가 주님께 여쭙겠으니 제게 알려 주십시오. ⁵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I. 신성한 계시에는 두 나무, 두 근원, 두 길, 두 원칙, 두 완결이 있다.

A. 두 나무.

1. 생명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2:9, 시 36:9상.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시 36:9상)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2.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사람에게 죽음의 된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 창 2:17.
(창 2: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B. 두 근원.

1. 생명나무는 자신의 공급과 누림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원이다 — 요 1:4, 15:1.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원이다 — 요 8:44.
(요 8:44)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

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3. 이 두 근원의 결과는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다 — 마 21:43, 12:26, 골 1:13.

(마 21:4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마 12: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골 1: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C. 두 길.

1.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 곧 비좁은 길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공급으로 누리게 하는 길이다 — 마 7:14, 행 9:2, 16:17, 18:25-26, 벨후 2:15, 21.

(마 7: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행 9: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여오기 위한 것이었다.

(행 16:17) 그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노예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 18:25-26) 그는 일찍이 주님의 길을 배웠고, 영 안에서 불타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²⁶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벨후 2:15)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빗나가,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습니다.

(벨후 2:21)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2. 두 번째 길은 죽음과 선악의 길 곧 널찍한 길이며,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다 — 마 7:13, 요일 3:10상.

(마 7:13)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요일 3:10상)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D. 두 원칙.

1. 첫 번째 원칙은 생명의 원칙,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이다 — 요 15:5, 창 4:4.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 4:4) 아벨도 자기의 양 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 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2. 두 번째 원칙은 죽음과 선악의 원칙, 곧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원칙이다 — 렘 17:5-6, 창 4:3.

(렘 17:5-6)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사람을 신뢰하며 /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⁶그는 사막의 덤불 같아서 /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 광야 메마른 곳 / 소금 땅과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거주하리라.

(창 4:3)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E. 두 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한 두 길의 최종 결과이다.

1. 하나님의 생명의 길의 완결은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다 — 계 21:2, 10-11, 22:1-2,
(계 21: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 21:10-11)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¹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2. 죽음과 선악의 길의 완결은 불 못이다 — 계 19:20, 20:10, 14-15, 21:8.
(계 19:20)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고,
(계 20:10) 그들을 미혹시키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언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계 20:14-15) 죽음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 못입니다. ¹⁵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계 21:8) 그러나 비겁한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가증한 이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된 이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II. 하나님의 의도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이 아닌,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욥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

- A.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 욥 2:11-32:1.
- B.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 — 욥 4:7-8.
(욥 4:7-8) 이제 기억해 보게, 죄 없는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었는가? / 올곧은 사람이 끊어진 일이 있었는가? ⁸내가 보아 온 바로는 죄악을 일구는 이와 / 괴로움을 심는 이는 같은 것을 거두기 마련이더군.
- C.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에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영역에서 구출하여 생명나무의 영역에 넣으려고 하셨다 — 욥 1:1, 2:3, 19:10.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욥 19:10) 그분께서 나를 사방에서 부서뜨리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 버리셨다네.
- D.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신 목적은 그를 선과 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을 극도로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욥 42:1-6.
(욥 42:1-6)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하였다. ²“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 주님의 목적은 어떤 방해도 받을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³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의결을 가리는 이가 누구겠

습니까? / 그러니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⁴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들어 보십시오. / 제가 주님께 여쭙겠으니 제게 알려 주십시오. ⁵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Ⅲ.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 창 2:9, 계 22:1-2, 14.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A.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음식의 형태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창 2:9.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B.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1.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동산이며, 에덴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생명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 — 창 3:22, 계 22:14.

(창 3:22)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C.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라는 상징의 성취이심을 계시한다 — 요 1:4, 15:5.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 요한복음에 계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생명나무의 결과이다 — 요 6:48, 8:12, 10:11, 11:25, 14:6.

(요 6: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 8: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E.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몫일 것이다 — 계 22:1-2, 14.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²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것을 영원히 이룬다 — 창 1:26, 2:9.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2.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음식이 될 것이다. 이 열매는 달마다 맺혀 언제까지나 신선할 것이다 — 계 22:2.

(계 22:2) 강²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IV.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나무로서 우리 안에 심으셨다 — 요 1:12-13, 3:3, 5-6, 15, 11:25, 15:1, 5.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요 3:5-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⁶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A. 우리는 우리의 실지적인 생활에서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 잠 16:25, 21:2.

(잠 16:25) 사람에게는 바른길로 보이나 /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잠 21:2)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다 옳아 보이나 / 여호와와는 그 마음들을 달아 보신다.

- B. 옫은 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 고전 15:28, 엡 3:16-21.

(고전 15:28)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C.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에 있지 않고,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에 있어야 한다 — 고전 15:45하, 롬 8:2.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D.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허무시고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재건축하시어,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하나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고후 1:9, 4:14.

(고후 1: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4:14) 이것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5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
선한 사람이 하나님-사람이 됨**

성경: 욥 1:1, 8, 2:3, 9, 27:5, 31:6, 42:5-6

-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 (욥 2:9)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여 버려요.”
- (욥 27:5) 나는 결코 자네들을 의롭다고 단언할 수 없네! / 나는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네.
- (욥 31:6)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로 달아 보시고 /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시기 바라네)
- (욥 42:5-6)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I. 성경 육십육 권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16-17상, 빌 1:21상.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A.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 요 6:57.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B. 실질적인 방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오늘날의 생명나무여야 한다 — 계 22:14.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II. 욥은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선한 사람이었다 — 욥 27:5, 31:6, 32:1.

(욥 27:5) 나는 결코 자네들을 의롭다고 단언할 수 없네! / 나는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네.

(욥 31:6)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로 달아 보시고 /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시기 바라네)

(욥 32:1) 이 세 사람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응수하기를 멈추었다.

A. 온전한 것은 속사람과 관련이 있고, 올곧은 것은 겉사람과 관련이 있다 — 욥 1:1.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B.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순전함은 온전하고 올곧은 것의 총체이다 — 욥 2:3, 9, 27:5, 31:6.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

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욥 2:9)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

(욥 27:5) 나는 결코 자네들을 의롭다고 단언할 수 없네! / 나는 죽기까지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네.

(욥 31:6)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로 달아 보시고 /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시기 바라네)

1. 욥에게 있어서 순전함이란 그의 존재의 총체적인 표현이었다.
2. 그는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윤리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순전함을 지니고 있었다.

C. 욥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 욥 1:1.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1. 하나님은 사람이 다만 그분을 경외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 창 1:26.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2.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3.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들은 전적으로 허무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도,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욥을 염려하셨다 — 욥 1:6-8, 2:1-3.

(욥 1:6-8)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⁷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⁸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 2:1-3)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²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³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D. 오직 하나님만 욥에게 한 가지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것은 욥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욥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을 얻기 원하셨다 — 욥 42:5-6.

(욥 42:5-6)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Ⅲ.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하나님-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 욥 22:24-25, 38:1-3.

(욥 22:24-25) 자네 금괴를 티끌 속에 / 자네 오빌의 금을 마른강 돌들 속에 놓아둔다면 ²⁵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금괴가 되시고 / 자네에게 값진 은이 되실 것이네.

(욥 38:1-3)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²“무지한 말로 / 내 의결을 어렵게 하는 이자가 누구란 말이나? ³당장 용사처럼 허리에 띠를 동여매라. / 네게 묻겠으니 고해 보아라.

A.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영역 곧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으로 이끄셔서, 욥이 자신의 온전함과 의와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들을 얻는 대신 하나님을 얻도록 하셨다 — 욥 42:5-6.

(욥 42:5-6)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⁶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B.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소모되게 하시고, 그가 온전함과 올곧음을 통해 최고 수준의 윤리 안에서 도달하고 성취한 것들을 그에게서 벗겨 내시려는 것이었다 — 욥 31:6.

(욥 31:6)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로 달아 보시고 / 하나님께서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시기 바라네)

C.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온전하고 올곧았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려는 것이었다 — 욥 1:6-8, 2:3-6.

(욥 1:6-8)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⁷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땅을 여기 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⁸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 2:3-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욥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곧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망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⁴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가죽은 가죽으로! 참으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⁵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뺏어 욥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⁶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는 네 손에 있다. 단, 그의 목숨은 살려 두어라.”

D.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다 — 딤후 6:11, 딤후 3:17.

(딤후 6: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딤후 3: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E. 하나님께서 욥을 벗겨 내시고 소모되게 하신 것은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욥을 재건축하실 수 있는 기초와 길을 얻으시어, 욥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아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엡 3:16-21.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IV.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나

님과 사람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사람이라 불리는 한 실체가 되었다 — 마 1:21, 23, 눅 1:35, 딤후 2:13, 딤후 2:5.

(마 1: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1: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눅 1: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딤후 2:13)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딤후 2:5)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A. 많은 하나님-사람들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자 재생산이자 복사판이자 연장이자 — 요 12:24, 히 2:10, 롬 8:29.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롬 8: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B.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동참하여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 요 3:15, 벰후 1:4, 고전 6:17.

(요 3: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벰후 1: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C.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 요 1:12-13, 3:6.

(요 1:12-13)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¹³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3: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1. 하나님-사람은 두 생명 곧 인간 생명과 신성한 생명, 그리고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

2. 하나님-사람은 생명-사람이다 — 요일 5:11-13, 롬 8:2, 6, 10-11.

(요일 5:11-13)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¹²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¹³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¹¹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사람은 금-사람이다 — 출 25:11, 벰전 1:7, 계 3:18, 21:18하.

(출 25:11) 그것에 순금을 입히되 안과 밖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둘러라.

(벰전 1:7)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계 3: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계 21:18하)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D.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사람은 사람이자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 엡 3:16-17상.

(엡 3:16-17상)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E. 하나님-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의이다 — 고후 5:17, 21.

(고후 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F. 하나님-사람은 그의 온 존재로, 곧 그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 막 12:30.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G. 하나님-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며,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산다 — 빌 3:3, 마 16:24, 딤펢전 4:7, 빌 1:21상.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딤펢전 4: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빌 1:21상)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H.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 딤펢전 6:11, 딤후 3:16-17.

(딤펢전 6: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¹⁷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I. 하나님-사람은 자신이 독립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새사람인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고전 12:12-13, 엡 4:16, 골 3:10-11.

- (고전 12:12-13)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¹³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